

스웨거
올리비에 바비네

스웨거 SWAGGER

감독 : 올리비에 바비네

AÏSSATOU DIA MARIYAMA DIALLO ABOU FOFANA NAZARIO GIORDANO ASTAN GONLE SALIMATA GONLE
NAÏLA HANAFI AARON N'KIAMI RÉGIS MARVIN MERVELLE N'KISSI MOGGZI PAUL TURGOT ELVIS ZANNOU

PRODUCTION MARLINE OBERMANN / FARO / ALEXANDRE PERRECHÉ / KIDAM CO-PRODUCTION SCHELLARNE MARVEN / MATHEMATIQ / SAM FONTAINE / CARINORHO / RUBEN BARCELO / JEAN-LUC BERGERON / JEAN-LOUANNY / ANIMALIE FILMS PRODUCTION COUILLONNE DE BARY / TIMO SALMINEN MONTAGE ISABELLE DEYNICA MONTAGE SONNAGE JEAN-BENOIT THONCKEL
PRODUCTION ASSISTANCE MAÏO MATHÉRY POST-PRODUCTION ÉLIE BIHAC CHRISTOPHE PENCHENAT MONTAGE VISUEL VALÉRIE DELBUYT MONTAGE SONNE CRISTINE SOBIL COORDINATEUR DE PRODUCTION NICOLAS BRANCHÉ MONTAGE AUDIO LAURENCE GUDON COORDINATEUR DE POST-PRODUCTION FRANÇOIS NAÏROUS OPÉRATION ASSISTANCE THOMAS RIGER REZOUZ MONTAGE SONNAGE CMC/ASCET MONTAGE SONNAGE LA COMMISSION DE LA DIVERSITÉ CNC/CSTP ASCET MONTAGE SONNAGE LA RÉGION ÎLE-DE-FRANCE LE DÉPARTEMENT DE LA SEINE-SAINT-DENIS ASSOCIATION D'ÉDUCATION ET DE CULTURE DE L'ÉTAT DE REZO FILMS         



Jeonju
Intl. Film
Festival



Photo: © Miquel Bujart / Olycom - Imágenes Scenic / TROVATA

프랑스 협조 기관
문화부
국립 영화와 영상 센터
교육, 청소년, 체육부


AMBASSADE
DE FRANCE
EN CORÉE
*Liberté
Égalité
Fraternité*

주한
프랑스
대사관
문화과



● 영화 정보

프랑스 | 2016 | 84 분

감독, 각본

올리비에 바비네

영상

티모 샬미넨

음악

장-브누아 당켈

몽타주(편집)

이자벨 드빈크

개봉

2016년 11월 16일 (프랑스)

출연

(각각 자신의 배역을 맡음)

아이사투 디아

마리아마 디알로

아부 포파나

나자리오 지오다노

아스탕 곤레

살리마타 곤레

나일라 아나피

아롱 주니어 은키암비

레지스 은키시 모지

폴 튀르고

엘비스 자누

● 시놉시스

올네수부아와 스프링의 낙후된 동네 출신의 청소년 11 명이 중학교 속 다채로운 색상의 공간에서 질문을 받는다. 각자는 가족, 일상, 희망, 미래에 대한 걱정을 털어놓는다. 어려운 사회적 현실은 곧바로 이들의 상상력에 전염된다. 이들의 대사에서 출발한 공상과학이나 뮤지컬 시퀀스는 이들의 생활 조건을 새롭게 규정한다. 《스웨거》는 결코 꿈을 잃지 않는 한 세대의 실제적이고 다채로운 초상을 그리는 시각적인 모자이크이다.



● 올리비에 바비네 다양한 경력

올리비에 바비네 감독의 경력은 매우 다양하다. 그는 여러 표현방식을 혼합했다. 여러 뮤직비디오(리타 미츠코나 좀비...), '사진-소설'의 형식을 한 TV 시리즈인 《르 비뉘(1999 년과 2000 년에 카날 플뤼스에서 방영)》, 《세 블리또 장르 조니 워커(2008 년 연출한 단편으로 많은 상을 수상함)》, 그리고 세 편의 장편 영화가 있다. 《로버트 밋침은 죽었다(2010 년 사진작가 프레드 킨과 공동연출)》, 《스웨거(2016)》, 《피쉬러브(2019)》이다. 《스웨거》는 매우 복합적인 작품 속에서 독자적인 위치를 차지한다. 실제로 이 영화는 오랜 기간 동안 진행된 교육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탄생했다. 올리비에 바비네 감독은 2 년 동안 올네수부아 지역의 클로드-드뷔시 중학교에서 지내며 학습 지도에 참여했다. 그는 학생들에게 판타지 영화를 교육하고 단편 영화를 연출하도록 기획하는 일을 맡았다. 이 프로젝트는 학생들과 올리비에 바비네 감독에게 공동의 상상에 대해 교류하고 《스웨거》라는 독특한 형태의 영화가 탄생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 대사의 전개

《스웨거》는 TV 르포르타주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단순히 인터뷰를 수집하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 대사들의 병치는 마치 청소년들이 합창하는 것처럼 보이게 한다. 배우들은 각자 독립된 공간에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몽타주를 통해 이들이 서로의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연출하고, 이로서 서로 다른 장소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물들의 관계를 만들어냈다. 이들의 대사는 벽을 넘고, 때로는 놀라운 시퀀스를 탄생시킨다. 예를 들면 아이사투의 상상에서 출발한 외계인의 침공[다음 페이지 참고]이 있다. 청소년들은 관객에게 매일의 삶과 과거의 일도 들려준다. 《스웨거》는 이들의 상상에 대한 다큐멘터리이다.



● 사실주의와 비현실성

현대적인 교회 속 드럼 솔로 연주, 중학교 로비에서의 패션쇼, 생기를 잃은 쇼핑몰 안에서의 노래와 춤, 공상과학 영화에 나오는 탐처럼 보이는 공공임대주택의 높은 건물... 《스웨거》는 본래의 기능에서 벗어난 장소들의 강한 이미지로 가득 차 있다. 마치 영화의 배경이나 만화의 무대 같지만, 이 장소들은 실제로 존재하는 곳이다. 배경에 툭툭 튀는 색을 덧칠하고, 조명으로 특별한 분위기를 만들고, 드론으로 촬영하는 등, 실제의 장소를 다른 세계로 전환하는 데는 거창한 게 필요하지 않다. 이러한 전환은 우리의 시각도 바꿔 놓는다. 우리의 일상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하고, 익숙한 환경이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변하도록 상상력을 자극하는 것이다.

«What hempen home spuns
have we swaggering here, so near
the cradle of the fairy queen?»

William Shakespeare, *A Midsummer Night's Dream* (1595)

● 장르의 혼합

포스터와 문서 속 이미지를 살펴보고,
《스웨거》의 분위기를 미리 엿볼 수 있는
여러 정보를 알 수 있다.

①

포스터를 어떻게 묘사할 수 있을까?[1 페이지]
포스터의 분위기는 유아기와 더 가까운가,
아니면 청소년기와 더 가까운가? 영화를 보고
난 뒤에, 포스터는 《스웨거》의 세계를 잘
대표하고 있다고 생각되는가? 이 포스터를 보고
다른 종류의 영화를 기대하지는 않았는가?

②

포스터를 포함해 이 문서의 모든 이미지 중에서
가장 '현실적'이라고 생각되는 이미지는
무엇인가? 그리고 더 '비현실적'인 이미지는
무엇인가? 또 그 이유는 무엇인가?

③

이 문서 속의 이미지를 특정 영화 장르와 연결
짓는다면? 이미지를 한 장르와 연결하는 데
주요한 요소는 무엇인가?

● 스웨거란 무엇인가?

‘스웍’은 수년 전에 ‘쿨(cool)’하다는 의미로
사용되던 유행어로, 오늘날에는 비교적 덜
사용되고 있다. 어쩌면 유행에 뒤지는 결과를
받지 않기 위한 의도인지, 영화는 결말
부분에 이 용어가 16 세기에도 사용된 적이
있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스웍이라는 단어는
바로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한여름 밤의
꿈’이라는 작품 속에서 처음 등장해
‘허풍쟁이’라는 의미로 쓰였다. 어떤
사전에서는 ‘재산’이나 ‘전리품’ 같은 뜻도
나타내고 있다.

①

영화를 보고 난 뒤에, ‘스웨거’라는 용어의 또
다른 뜻을 11 명의 인물과 연결한다면?

②

셰익스피어의 작품 속에 엘프나 요정과 같은
판타지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이 영화에서 사용된 요소가 또 다른
방식으로 놀라운 세계를 나타내고 있지는
않은가? 그리고 이 세계는 호의적인가,
불안감을 조성하는가? 혹은 둘 다인가?

③

꿈에 관해, 영화의 어떤 요소가 꿈의 분위기를
상기시키는가?

«아니, 요 별 볼 일 없는 것들이
뭘 이렇게 허풍을 떨고 있나, 우리
요정 여왕님이 주무시는 곳
가까이에서?»

윌리엄 셰익스피어, ‘한여름 밤의 꿈(1595)’



● 시퀀스 분석

아이사투의 걱정거리를 이미지로 나타낸 시퀀스이다. “지금에 이상해요. 저는 미래가 오늘보다 더 멋진지 자문해요. 미래요? 어쩌면 벌써 종말이 다가오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 대사에 맞춰 도시는 공습을 받는다. 시퀀스 끝부분에 나일라는 스파이 드론의 기능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이어나간다.

① 이미지 [2], [3], [4], [5]를 유심히 보고, 이미지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생각해보자. 이 이미지를 어둡 극적이고,

불안함을 느끼도록 만드는 요소는 무엇일까?

- ② 세 명의 중학생, 아이사투[1], 레지스[6], 나일라[7]를 묘사한다면? 이들의 표정은 그들이 처한 상황에 적절한가, 아니면 부적절한가?
- ③ 이 시퀀스는 영화보다도 게임이나 인터넷에 관련된 이미지를 떠올리게 하지는 않는가?



1



5



2



6



3



7



4

8

프랑스 협조 기관

문화부
크림 영화와 영상 센터
교육, 청소년, 체육부



주한
프랑스
대사관
문화과

kr.ambafrance-culture.org



@franceencoree_culture



프랑스문화원 France en Corée



French Cast